

문양을 읽으면 전통문화 보인다



한국의 전통문양
임영주 지음
대원사 | 1만8천원

‘그 나라의 전통 양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문양을 알아야 한다.’

문양에는 언어나 문자와 마찬가지로 한 민족의 정신과 생활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양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 이전에 담겨진 상징적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문양전문가인 임영주(문화재전문위원) 씨가 최근 펴낸 <한국의 전통문양>을 보면 우리나라 전통문양의 상징성에 대한 해답이 상세히 들어 있다. 이 책은 선사시대 빗살무늬토기부터 조선시대 베갯모까지 우리나라 생활용품에 나타난 다양한 전통문양의 의미를 6백여컷의 사진과 함께 쉽게 설명해 놓았다.

일반적으로 ‘무늬’라 하면 물건의 표면에 일찍이 형상이 나타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 하찮은(?) 무늬만큼 인류 문명의 발전에 직·간접으로 공헌해 온 것도 드물다. 또한 예술사(藝術史)에서 무늬가 조형미술 전반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물질적 공헌을 넘어서 정신사적 공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무늬는 또한 언어나 문자와 마찬가지로 그 민족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고유한 형태를 지니게 마련이며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를 전통문양이라 말한다. 그래서 크고 작은 것, 단순하고 복잡한 것에 상관없이 각기 독자적인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무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늬가 사용된 물건이나 장소까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양의 뜻과 생성배경, 발전사에 대해 설명을 예로 들려

연스럽게 풀어 나가 자칫 딱딱하거나 원론 중심으로 치우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해 준다.

가령 경주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와당(瓦當)은 일월상무늬(日月象文)가 불교미술에 등장하는 시기를 가늠해 준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통해 신라 이후 불화에서도 일월 신화를 받아들여 탕화와 부도의 기단석, 수기사 등에도 일월상무늬가 등장하게 된다는 역사적인 정보까지도 곁들여 준다. 하나더 소개한다. 흔히 박쥐는 기회주의적 동물로 여겨지지만 조선시대에는 ‘청화백자 편복무늬파리연적’ ‘박쥐수노리개’ ‘백자 박쥐무늬박살’ 등 박쥐 문양이 생활 속에서 널리 쓰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박쥐의 한자 표기인 ‘편복’의 ‘복’ 발음이 ‘복(福)’과 같아 행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쥐 두 마리는 ‘쌍복(雙福)’, 다섯 마리는 ‘오복(五福)’을 뜻한다는 것이다. 어두운 동굴 안에서 사는 박쥐가 복을 주는 동물임을 새삼 알게되는 재미가 솔솔하게 느껴진다.

이 책은 또 새와 동물, 꽃과 곤충, 심장생, 길상문자로 크게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문양의 종류를 세분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상서로운 새와 짐승’ 편에서는 상서로운 새로 학, 앵무, 닭, 공작, 백로, 원앙, 기러기, 오리, 까치, 꿩, 팔자조, 가뿔빈가 등을 들었다. 또한 농경생활과 각종 금기에서 비롯된 동물들로는 해태, 호랑이, 불가사리, 박쥐, 뱀, 물고기 등이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전반부가 문양의 소재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라면 후반부에 있는 ‘감상편’은

선사시대 빗살무늬토기부터

조선시대 베갯모까지

우리나라 생활용품에 나타난

다양한 전통 무늬의 의미

6백여컷 사진과 함께 설명

복식, 비단, 베갯모, 직물, 꽃담, 문과 창호, 무늬전돌 등에 사용된 무늬들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다.

특히 문양도 분명 종교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그 예로 불교가 융성했던 통일신라시대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연화(蓮花) 무늬가 토기, 도자기, 칠기 등 비롯해 단청과 건축의장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꼽았다.

그렇다면 고미술에 나타난 문양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한 지침은 무엇일까. 저자는 무엇보다 옛 미술품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옛 미술품을 대하면서 눈과 마음, 생각 모두를 통해 오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꼭 고미술의 감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문양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각 작품이 탄생된 시대적·사회적 배경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 작품이 지닌 미의 본질까지도 추구해 보는 것이 당 시대의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①대군의 기린 흉배 ②문관의 단학 흉배 ③문관의 쌍학 흉배 ④무관의 단학 흉배 ⑤무관의 쌍학 흉배. 흉배는 옷감과 같은 비단에 품계에 따른 문양을 수놓아 관복을 화려하게 하고 상하의 신분별을 표시하게 한 것.



절망이 아닌 선택

디오도어 루빈 지음 · 안정효 옮김 | 나무생각 | 1만9천8백원

<절망이 아닌 선택>은 전세계적으로 번역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출간돼 20여만 부 이상이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다. 이번에 4부 ‘기쁨’ 장이 증보된 이 책을 안정효 씨가 재번역해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이 책은 상대방은 용서하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죄는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잊지 못하고 두고두고 자신을 확대하고 괴롭히는 일상의 자기 증오가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불행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신분석가인 저자는 그 동안 자신이 상담하고 치료했던 환자들의 사례를 다양하게 인용해 이해를 돕고 있으며, 그 하나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당신은 지금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연민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지금 당장 자기 자신에게 채운 족쇄를 풀어라. 그

‘환희와 절망’은 한 생각 차이

정신분석학자의 자기 증오 극복하는 철학

리고 깊이 생각해 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중요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충고한다.

절망에 빠진 사람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완벽주의, 자기비하, 환상 등. 하지만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삶을 누릴 수 없다.

저자는 자신의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며 자기증오에 빠져서 되고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걸 밝혀내고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사망이란 완전할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당장 그대 자신을 좋아하기 시작하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보다 더 훌륭해지려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지 말라 △모든 상황에서 뛰어난 인간이 될 수는 없다. △실패와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등의 충고를 제시한다.

특히 저자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부에 잠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 효과를 저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인 자기증오를 극복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내는 요소인 관용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건설적인 성장과 인간의 창조적인 가능성으로서 관용이 지닌 잠재력은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락과 지옥은 한 생각 차이라는 말이 있다.

부정적인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자기증오와 상호간의 증오를 감소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공감하는 사회의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오늘부터 생각을 한 번 맑고 건강하게 바꾸어 보자.

■정문성 (서울대 심리학과 박사과정)

길을 묻는 이에게 들려주는 대행 스님의 지혜의 말씀

삶은 꿈가 아니다



쉽고 명쾌한 대행 스님의

‘참살’ 인생 이야기

때로는 아득막한 산허리를 돌아 흐르는 시냇물처럼, 나지막한 목소리였다가 한순간에 폭포수 같은 사자후를 토해 내기도 한다. 대행스님은 인양의 한마음선원에 계신다. 그러나 어디고 계신다. 오로지 만 생명이 자성을 밝혀 대자유의 세계로 들게 하기 위해 포교와 수행으로 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쇄

■대행 스님 법어 | 해원 스님 역음 | 254쪽 | 9,000원

왜 스님은 팬티만 입고 공중취조실에 있었을까?

스님이 이야기

법정·서암·명정·대오 스님 등 85명 수행자들의 일화를 모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최근 발간된 ‘스님이 이야기’는 지복·효린·현진 스님 등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 85명의 일화를 소개했다. 엄숙함의 배일을 걷고 보야도 수행자로서 고결한 자세와 인간미가 도드라진다.

- 조선일보

합천 해인사 주지이면서도 절 주변을 돌며 관광객이 버린 담배꽂이와 휴지를 주웠던 지월 스님, 코리 나도 꼭 읽어달라고 상대방에게 부탁했을 하지 않았던 무술 고수 대오 스님 등 다양한 수행승 이야기가 전술하게 펼쳐진다.

- 동아일보

지복·허주·수완·정운·원숙 스님 등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전형적인 학자풍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20여 년 가까이 장과분과, 오후분식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곁에서 지켜본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 전해고 있다.

- 연합뉴스



■지복 스님 외 지음 | 448 쪽 | 12,000원

禪

DISCUSSION ABOUT CHAN(ZEN) BUDDHISM

문밖에 나서다

중국 선불교 다시 읽기! 그리고 되받아 쓰기!

중국 선사들의 선문(禪文)을 패치워크방식으로 새롭게 해석!

『禪, 문밖에 나서다』는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내가 그 동안 읽었던 책들, 또는 나의 짧은 생각들과 연계시켜 본 작품이다. 마치 고급 실로 짠 천 조각을 붙여 만든 조각보처럼…….

- 본문 중에서



■석해탈 저 | 456쪽 | 14,000원